

주일 예배 후 한인 헬로우십 안내

주일 11시 예배 후 체육관에서, 한인들간의 교제 테이블 모임이 12:15-1:15시까지 있습니다. 커피와 떡을 나누면서, 한주간의 삶과 예배에서 주신 감동을 나누고, 사감을 갖는 모임입니다. 친교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3세-5학년 (벽난로방) / Youth (Willamette C)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 안내

- 수요일: AWANA 6:30-8:15pm
- 주 일: 2살 미만 (1층 Nursery),
2-3세 (Tiger Room),
4세 (Monkey Room),
5세, 유치원생 (Flamingo Room)
- 중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윌라멧
- 고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 채플,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노스빌리지

한인부 나눔방 안내

1조	김광현	격주 토 8am
2조	김현주	격주 주일 12:30pm
3조	고복순	목 11am
4조	이연우	금 7pm
5조	주홍삼/정은	금 7pm
6조	이윤영/미라	목 9pm
7조	강원재/현희	금 7pm
8조	유규하/정현	금 7pm
9조	조성갑/윤숙	금 7pm
10조	조지영	금 10am
11조	이명숙	금 7pm
12조	김봉섭/정원	금 7:30pm
13조	박은교	목 6pm
14조	김하운	목 7pm
15조	손종호	토 10am
16조	김진우	금 8pm
17조	박승진/순옥	토 8pm
18조	이준영/주영	금 7:30pm
19조	신현철	금 8:30pm
20조	전동명	금 10am
21조	장희상/경민	토 7pm
22조	황지현	목 7pm
23조	강성범/성은	금 7pm
24조	김한나	금 10am
25조	최정아	금 10am
MID	이종천/지은	월,1,3주 금9:30am

한인부 정기 모임 안내

- 수요 예배 : 7:00pm (채플, 한어 예배)
- 새벽 기도회 : 월-금, 5:30am (대예배실),
토, 6:00am (음악실)
- 중보 기도회 : 월요일 7:30pm
(형제: 윌라멧 A
자매: 윌라멧 C)
수요일 9:30am
(자매: 헬로우십홀)

봉사 당번 안내

	1/20	1/27	2/3	2/10
헬로우십 다과	나눔방 24조	나눔방 25조	나눔방 18조	나눔방 19조
어린이 돌봄	전경우, 박나경 이윤경, 황진희	김새롬, 조혜영 윤재연, 전해경	황지현, 이윤선 전경우, 조혜영	김주봉 박시연 김한나 이윤경
주차 봉사	나눔방 24조	나눔방 25조	나눔방 18조	나눔방 19조
예배 안내	나눔방 24조	나눔방 25조	나눔방 18조	나눔방 19조



VILLAGE
CHURCH

2019년 1월 20일



“이 책을 먹으라”

계 10:9

균형 잡힌
성장

Pursuing
Truth

응답하는
예배

Responding
in Worship

살롬
공동체

Marked
by Love

변혁
공동체

Living
the Gospel

330 SW Murray Blvd, Beaverton, OR, 97005 / 503-643-6511 (교회)
villagebeaverton.com / kf.villagebeaverton.com



위쪽으로 떨어지다 Falling Upward

창세기 11:1-9
렌지 아브라함 목사

창세기 11장 1-9절

- (1절)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 (2절)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 (3절)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 (4절)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흠어지지 않게 하자."
- (5절)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 (6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 (8절)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흠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 (9절)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 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흠으셨다.

Overview:

Although written over hundreds of years, the Bible is a unified story centered on Jesus. Our tendency is to see the Bible as disconnected stories. Through this series, we are aiming to help paint the overarching story and themes of Scripture. We hope that we would grow in our knowledge of our sacred Scripture and in our love for Jesus.

This week we turn to the story of the Tower of Babel, found in Genesis 11. Theology matter. What we think about God will affect how we think about people, and therefore affect the kind of communities and world we live. This is so evident in this passage and the way that this passage has been interpreted and used in throughout history. Some have claimed based on their readings of this story that diversity is a direct result of the sins of humanity. They have used this interpretation to justify dismissing and even subjugating other people. However, when the overall story of Scripture is looked at, that is actually the opposite of what the Scriptures are saying.

Genesis 11 is the culmination of the story of humanity's sin. The act of disobedience in the garden between Adam and Eve has destroyed the relationship between spouses, brothers, families, tribes, and now nations. But God is still present, working to bring healing and restoration. His act of confusing the nations is an act of disrupting oppressive powers and rescuing those who are hurting. Genesis 11 stands as a challenge to future that we should never lose sight of the value and dignity of each person because all people are made in the image of God.

Discussion Questions:

1. What insight, principle, or observation from this week's message did you find to be most helpful, eye-opening, or troubling? Explain.
2. Why does theology matter? What are examples of inaccurate/false interpretations of Scripture that have been used to justify wrongs?
3. What is the movement of Scripture up until this point? Why is it helpful to see Genesis 3-11 as the entire story of humanity's fall?
4. What is the subtext of Genesis 11? Why do we know that this is one group subjugating other people? What clues do the Scriptures give us in the story? (Look also at Genesis 10 - how many people groups are there?)
5. What are the people striving for? Why is that wrong? What does God do? Is this an act of judgment or grace? How and why?
6. Why is the story written in a general way? What is the challenge for humanity as a whole when we read this? What is the challenge for us individually?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1

목회칼럼

최규진 목사
Pastor for Korean Ministries

지난 주말에 '과학과 신학의 대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기획함에 있어 두가지의 넓은 취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과학과 신학/신앙의 관계 (특별히, 창조와 진화 논의의 관련)에 관하여 보다 폭넓은 기독교적 이해와 성찰을 시작하고자 함이었고, 둘째는, 성서 이해와 해석 방법을 습득함에 있어서 도움과 통찰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에 맞서 성경을 읽음으로, 성서적 세계관의 온전함을 확립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바람과 기도가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 참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지역 교회의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또 찾는이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소 생소한 내용이라, 지난 주간에 많은 생각들이 지속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던 피드백도 있으셨고, 그간 불투명하고 불편했던 구석이 말끔하게 정리된 느낌이라던 피드백도 있으셨고, 그간의 이해와 달라 충격이 있었지만 이제 많이 정돈이 되셨다면 피드백도 있으셨고, 이것을 어떻게 정돈해야할지 아직 막막하다시던 피드백도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이십여년간 한국 교회와 교계에서 널리 알려졌던 '한국 창조과학회'의 해석과 차이가 있기에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으리라 싶습니다 (저 역시 자랐던 교회와 KOSTA 집회 등에서 창조과학회의 설명을 익히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간 믿어왔던 바에 도전함과 폭을 넓혀감을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정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을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영성이란 성서적 세계관의 온전함으로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향한 경외와 유한한 피조물로서의 겸손함 안에서, 나 자신의 욕망과 가치체계와 이해에 지속적으로 맞서서, 우주보다 넓으시지만 나 자신보다 나에게 더 가까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며, 그 관계와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천하무적 정답을 갖고 살기보다 유효한 질문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남겨진 의문들과 질문들을 쉽게 내려놓지 마시고, 깊은 성찰의 계기로 삼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가 될까 하여 금일 주보에 관련 아티클을 함께 씁니다. 저를 포함하여 함께 대화하기 필요하시다면 나눔방으로 초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 과학과 신학의 관계에 관하여는 다음달초부터 Village University를 통해 10주간 더욱 깊이 탐구할 기회가 있음을 기억해주시십시오. 광고에 추천드리는 도서가 도움이 될수도 있으리라 싶습니다.

십여년전 등장한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의 모습과 생활습관, 관계, 가치관 등에 미친 변화와 영향이 매우 큼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분야뿐 아니라, 생명공학과 유전공학의 영역을 포함한 과학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많은 질문들과 도전들이 있습니다. 생명윤리에 관한 성찰도 깊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금번 '과학과 신학의 대화' 세미나를 통해 이 시대 속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재고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과학 시대에 복음과 신앙, 기독교적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소소한 통찰들과 유효한 질문들을 시사해주는 계기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구현하는 진리와 생명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함께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2

창세기와 오늘

김근주 교수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출처: 성서한국 2013]

창세기와 창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한 이들은 창세기 1장의 진술이 실제 창조의 과정을 사실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여겼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오늘 24시간으로 이루어진 7일에 걸쳐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여겨서, 지구가 6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여기고 (1650년 아르마의 대주교 우셔에 의해 처음으로 주장됨), 태양이 지구의 둘레를 돈다고 여겼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생명체들을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기에, 생명의 진화를 주장하는 진화론은 성경에 반대되는 주장으로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의해 배격되어왔다. 이러한 논리가 19세기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를 중심으로 구체화되어 주장된 것이 이른바 '창조과학'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취한 또 다른 창조에 대한 이해들의 일부 예

[유신진화론]

하나님에 의한 최초의 단세포 동물로부터 과학에 의해 관찰되는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이 경우, 새로운 종은 자연 과정으로 진화했으나 하나님이 과정에 연속적으로 개입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진화가 되도록 창조의 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진화는 하나님의 창조원리의 하나이다. 창조가 종교적 원리라면, 진화는 과학적 원리라고 본다. 하지만 이 입장의 문제점은 창조자의 초자연적인 개입이나 한 분의 지적인 설계자의 빈번한 창조활동 등이 과학적으로 전혀 입증될 수 없기에 실질적으로 그 자리가 없다는 점이다. 과학의 성과를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려는 노력이지만, 유신진화론은 진화론을 받아들인 신앙인 이상의 아무런 의미도 없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진화의 모든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선언하는 셈이다.

[지적 설계이론]

생명체의 공통 조상에 대한 이론을 받아들이며, 시간에 따른 변화라는 진화에 대해서도 수용적이다. 그렇지만 우주의 기원에 있어서나 인류의 기원에 있어서, 발생에서부터 현재에까지 무작위적 번이에 따른 자연 선택이라는 진화론의 견해에 대해 지적 설계론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화의 모든 과정에 "지적 원인"에 의한 개입과 설계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 설계를 추론 탐지하고자 한다. 무작위성이나, 개입과 설계나. 또 다른 충돌 지점은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대한 유신진화론의 확고한 신념과 이에 대한 지적 설계론자들의 반대이다. 지적 설계론은 진화론이 무신론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비판을 시도한다.

기독교 교파에서의 창조 이해

카톨릭이나 정교회는 대체적으로 창조론을 기본으로 주장하지만, 다양한 연구에 열려 있다. 성공회는 아주 개방적이다. 성공회는 창세기 1-2장에서 진화론에 대한 어떤 반대도 볼 수 없다고 진술하며, 이 본문들의 상징적 가치를 중시한다. 이와 더불어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실제적으로 '가공스런 과물'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영적인 교제 지속과 공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고의 자유가 확보되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개혁교회의 현대적 논의들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활동을 부인하는 모든 진화 이론을 거부하되 인류의 기원에 대한 논의에는 열려 있다. 또한 어떻게 우주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 더 이상 신학적 질문이 아니라 과학적 질문이라는 점도 널리 동의되고 있다. 결국 지구와 우주의 시작과 연대에 대한 문제는 사람 창조에 대한 문제보다는 훨씬 유연성이 있다고 보인다.

해결 모색

창조과학의 주장들이 성경 본문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에서 나왔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본문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본문을 과학적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과학은 본문의 문자적 이해를 뒷받침할 때가 있지만 정반대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본문과 일치하는 것은 과학의 증거로 사용하고, 본문과 차이가 날 경우 과학의 주장을 틀릴 것으로 결론 내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것은 지극히 아전인수적인 과학사용일 것이다 (이것은 고고학에 대한 성경의 관계와도 비슷하다). 창세기는 근본적으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진술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신앙적 진술을 고대의 세계관에 따라 진술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그들은 육체적 죽음을 '당장' 맞지 않고, 아담의 경우 930세까지 살았으나 우리는 이 본문들을 문제 삼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달리 '해석'하기 때문이다. 시편 19편 5-6절이 천동설의 근거로 이해되었던 예가 있듯이, 구약 말씀의 신학적 성격과 문학적 양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약 본문을 문자적으로 읽게 되면, 열도당토 않는 주장이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구약의 본문은 '해석'될 필요가 있다. 해석하지 않으면 본인의 입장에 맞는 것은 문자적으로 읽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해석해야 한다고 하며, 일관적이지 못한 자세로 성경을 대하게 된다. 이럴 때 성경은 나의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도구가 되어 버린다.

오늘날의 과학은 우주가 138억년 전에 만들어졌고, 지구는 46억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정설로 여기고 있다. 흔히 진화론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 그리고 과학과 신앙은 양립 불가능하다고 주장된다. 지구가 46억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과학적 주

장의 타당성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는 무관하듯이, 과학의 타당성 여부에 기독교 신앙의 존립이 달려 있지 않다. 진화론을 비롯한 과학은 '어떻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창조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성경은 '누가' 그리고 '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과 신앙은 서로 다른 범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현상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무신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에 의한 과학적 탐구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오묘함을 더욱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은 창조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빛나게 하고 깊이 깨닫고 음미하게 한다. 다윈을 비롯한 많은 진화론자들도 자연이 빚어내는 놀라운 광경에 대해 경탄한다. 신앙은 그러한 놀라움을 하나님의 손길로 깨닫는다. 그렇지만 그것은 설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평범한 사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이에게는 기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에게는 당연히 늘 일어나는 흔한 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이며, 그 해석의 기반에 기독교 신앙의 자리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진화론과 과학이지 않다. 진화론과 과학이 주장하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사실에 근거한 그릇된 해석,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과학을 두려워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가령, 사회적 진화론(Social Darwinism)을 주장하는 어떤 이들은 경쟁과 적자생존을 질서로 여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당연시 여기며 기도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꿈꾼다. 이를 볼 때, 우리의 싸움은 진화론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진화론에 근거한 잘못된 해석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제껏 성경의 문자적 읽기가 지닌 한계를 지적했지만, 진화론을 비롯한 과학의 주장을 수용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무엇보다도 진화론의 주장이 성경에서 글자 그대로 말하는 바와는 충돌된다는 점일 것이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지 않는다면 어느 부분까지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도 생겨난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간단하고 손쉬운 정답을 말할 수는 없다. 중세의 시기를 살던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문자가 확고하게 가리키고 있는 천동설이 무너지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리라 여겼지만, 이후로도 성경은 여전히 지동설과 공존한 채 생생하게 그 권위가 살아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교회를 지킨 것은 천동설로 대표되는 당시의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다.

그러므로 창조신앙을 말한다는 것은 단지 교리나 조직신학적 선언을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창조를 말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 생명을 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선언하는 것이며, 그래서 창조신앙이야말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따르며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된다. 노예 생활로부터의 출애굽을 경험한 이들에게 창조 신앙은 자신들의 모든 환난 속에서 참된 생명과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확고하게 일러주는 역할을 하였다.

빌리지 알림판

@ 한인부

1. 환영합니다

오늘 빌리지를 처음 방문하셨는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11시 예배 후, 체육관에서 모이는 한인들간의 교제 테이블 모임으로 초청드립니다. 한주간의 삶과 예배에서 느낀 생각과 감동을 중심으로 사귀를 갖는 모임입니다. 체육관은 남쪽으로 옆건물 아랫층에 있습니다.

2. 2019년 빌리지 한인부 사역주제: “이 책을 먹으라 (계10:9)”

2019년 한인부 사역 주제는 ‘이 책을 먹으라 (계10:9)’입니다. 예배와 나눔방 모임, 개인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 맞서서 읽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세계관을 창조해 주심을 바라고, 그 풍성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한 안내는 옆 QR코드를 통해 지난 1월 2일 수요예배 말씀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3. 2019년 상반기 한인 헬로우십 안내

2019년 상반기 (6월말까지)에는 나눔방별로 한인 헬로우십 시간에 참석하게 됩니다. MID그룹과 영어 테이블 (Sunday Sermon-Based Group), 또 나눔방에 속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주일모임 테이블도 있습니다. 8월까지의 예배안내와 헌금위원, 주자 봉사, 다과픽업 및 셋업 당번도 나눔방별로 섬기게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또한 원활한 주일 예배 참여를 위해, 헬로우십 테이블 세팅 봉사자를 따로 두지 않고, 나눔방별로 체육관에 입장하시면서 입구에서 테이블보와 다과, 번호표를 픽업하여 설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2019 한인 헬로우십 다과

2019년에는 주일 헬로우십 다과를 각 주일에 자원하는 가정으로부터 도네이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섬김으로 나누고자 하시는 분은 김광현 목사에게 문의해주시십시오.

5. 한인 헬로우십 테이블보 세탁 봉사자 필요

매주일 한인 헬로우십에서 사용하는 테이블보의 정기적인 세탁이 필요합니다 (주당 약10장). 오는 8월까지 섬겨주실 수 있는 분들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장희상 형제).

6. 한인부 도서관 안내

다음의 도서들을 한인부 도서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 (IVP, 우종학)
-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 (새물결, 우종학)
- 창조론 연대기 (새물결, 김민석)
- 아론의 송아지 (새물결, 임택규)
- 창조와 진화 (SFC, 양승훈)
- 인류의 기원 (사이언스북스, 이상희)

- 성경, 바위, 시간 (IVP, 데이비스 영)
- 세계관적 설교 (성서유니온, 전성민)
- 온 세상을 위한 구약 윤리 (IVP, 존 바턴)
- 오감으로 성경읽기 (포이에마, 김동문)
- 묵상의 여정 (성서유니온, 박대영)
- 이 책을 먹으라 (IVP, 유진 피터슨)

7.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2월호)

빌리지 한인부 2019년 말씀묵상집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2월호가 출간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을 돕고, 또한 나눔방 모임시 사용됩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Suggested Donation: \$10).

8. 나눔방장 모임 (1/27)

나눔방장 모임이 있습니다.
- 일시: 1월 27일 (주일) 9am
- 장소: Columbia B

9. 2019년 빌리지 한인 사역 섬김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다음의 꼭 필요한 역할로 섬겨주실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나눌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겸손한 섬김의 의지가 있으신 분은 자원 및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광현 목사).

- 주일 한인 헬로우십 세팅 지원
- 문서 번역 (가끔)
- 주일 예배 통역 (월1회)
- 어린이 돌봄 (가끔)
- 다문화예배 개발
- 방문자 환영 지원

10. 주일예배통역 안내 (1/6-20)

신년 첫 3주간 (1/6-20) 주일예배 한어 통역이 없습니다. 2019년부터는 5-6명의 봉사자가 월1회씩 순회적으로 섬겨주시길 소망합니다. 현재 마무리 훈련중인 3명의 봉사자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2-3명의 봉사자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1. 2019년 한인 주보 안내

한동안 주일예배 설교노트가 별지로 준비됩니다. 설교노트는 스티커 용지로 준비되며, ‘함께 살아가는이야기’ 큐티집 해당 주일노트 페이지에 부착하실 수 있습니다.

12. 어린이 사역 안전교육 (Safety Training)

빌리지에서 어린이 사역/돌봄에 참여하는 모든 봉사자들은 매 2년마다 안전 지침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안전하고예방적인 사역을 위해 안전 교육 훈련의 수강/갱신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신윤선 자매).

- 일시: 1월 27일 (주일) 2pm

13. 제3기 포틀랜드 카이로스

제 3기 포틀랜드 카이로스 선교훈련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현재 80여개 국가에서 40여개 언어로 시행되고 있는 선교훈련 프로그램으로서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가치와 초점을 재조명하는 것을 돕는 훈련 과정입니다.

- 일시: 2월 23/24일 (토/주일), 3월 2/3일 (토/주일), 8/9/10일 (금/토/주일)
- 참가비; \$120 (1월말까지 등록시 \$100)
- 등록 및 문의: 김진우 형제 (chinkim77@gmail.com)

@ 온 교회

1. 2019년 빌리지 예산안 설명회 (1/20(주일), 12:30pm @Columbia B)

2019년 빌리지 사역 예산안 설명회가 오늘 있으며, 27일에는 예산안 승인 여부에 관한 투표가 있습니다. 예산안은 오늘 로비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 Derrick McDuffey & Kingdom Sound 콘서트 (1/20(주일), 7pm @대예배당)

오늘 예배에서는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Derrick McDuffey & Kingdom Sound 찬양팀을 예배 인도자로 모십니다. 그날 저녁 7시에는 Dr. King의 사역을 기리는 특별 무료 콘서트가 열립니다. 오늘 오후 5시 예배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친구분들을 초청하오니 함께 멋진 음악과 찬양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3. 빌리지 카페 봉사자 훈련 (1/26(토), 10am-12pm)

빌리지 카페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특별한 커피나 스무디 만드는 법을 배우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봉사자 훈련은 1월 26일(토)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 문의 및 신청: Jenny Reid, jennyr@villagebeaverton.com

4. Women's Retreat 2019 (2/8-10 @ Cannon Beach)

2019년 여성부 수양회가 Trisha Welstad를 강사로 모시고 Caring for Self and Neighbor in the Way of Jesus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체크인은 금요일 4시까지이며, 저녁 7시에 첫 세션이 시작되어 일요일 오후 2시에 마칠 예정입니다. 신청은 로비의 안내 데스크나 QR code를 이용해 주십시오.



5. Men's Breakfast (1/26(토), 7am @ 체육관)

맛있는 아침식사와 함께 지역사회의 탁월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로비의 안내 데스크를 찾으시거나 Bob Walker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5입니다. (bob@VillageBeaverton.com)

6. Student Ministry Parent Meeting (2/3(주일), 1-2pm @ Columbia Rooms)

오는 2월 3일 학생부 사역팀에서 주관하는 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2019년 봄, 여름 중교 등부 일정을 설명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 부모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포틀랜드 제3기

카이로스

2월 23일 (토)	8am - 1pm
2월 24일 (주일)	3pm - 7pm

3월 2일 (토)	8am - 12pm
3월 3일 (주일)	3pm - 8pm

3월 8일 (금)	6:30 - 9pm
3월 9일 (토)	8am - 8pm
3월 10일 (주일)	3pm - 8pm

참가비 \$120 (1월 말까지 등록시 \$100)

등록 QR Code Scan



문의 김진우형제
503-209-3131
chinkim77@gmail.com

Kairos
God
the Church
and the World